

[증권] 8 월 지표 점검

지표 부진 지속, 주가영향은 제한적

2018/09/03

강승건

(2122-9181)

neo.cygun@hi-ib.com

■ Brokerage 지표 점검: 거래대금 부진 지속, 신용잔고는 회복

- 8 월 일평균거래대금은 8.8 조원으로 7 월대비 2.1%, 2 분기대비 37.0% 감소하였음
- 개인들의 매매비중은 63.0%로 7 월 61.5%대비 소폭 상승하였고 월평균시가총액은 7 월 수준이 유지되었지만 각 매매 주체별 회전율이 하락하였기 때문임
- 신용거래용자는 7 월말대비 3.9%(KOSPI +2.8%, KOSDAQ +5.0%) 증가한 11.3 조원을 시현하였음. 5 월 고점대비로는 낮은 수준이지만 7 월을 저점으로 회복되고 있음. 예탁증권담보 대출의 경우 18.8 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
- 신용거래용자가 및 개인들의 매매비중 측면에서 7 월대비 회복되었지만 거래대금은 여전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Brokerage 관련 지표는 8 월에도 부진한 것으로 판단
- 회사별 약정 점유율은 삼성 6.0%, 미래대우 12.3%, NH 6.7%, 한국 5.4%, 키움 17.1%로 2 분기 대비 각각 -0.1%p, -0.5%p, +0.3%p, +0.1%p, -1.1%p 증감하였음. NH 투자증권의 점유율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임

■ Trading 및 상품손익 지표 점검: 파생결합증권 부진은 8월에도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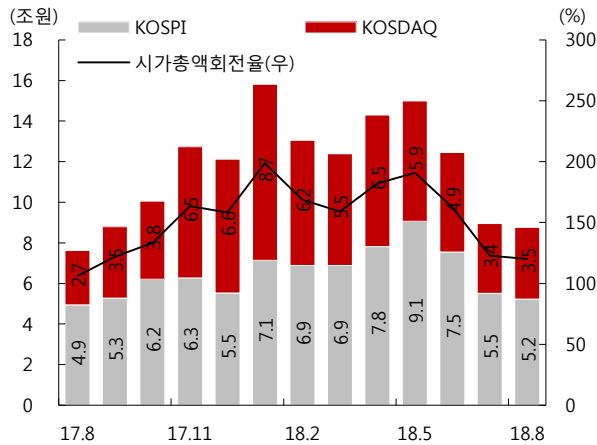
- 7 월말 국고 1 년물, 3 년물 금리는 전월말 대비 -10.0bp, -21.5bp 하락하였음. 8 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되었고 부진한 경기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임
- 7 월 업계 전체 ELS 조기상환은 2.9 조원으로 7 월 1.7 조원 대비 회복되었지만 1 분기 월평균 5.4 조원, 2 분기 4.9 조원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임
- 이와 동시에 ELS 발행 역시 7 월 5.2 조원에서 이어 8 월에는 4.4 조원으로 감소하였음. 2 분기 월평균 발행량은 8.2 조원 이었음
- 7 월에는 조기상환 대상 ELS 의 발행지수대가 높았다는 점이 있었지만 8 월 조기상환 부진은 KOSPI 및 중국관련 지수의 부진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됨
- 금리가 급락하고 있으며 주식시장이 7 월이후 소폭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ELS 조기상환 부진을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

■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이미 낮아진 상황, 주가 영향은 제한적

- 7 월 시장 지표의 부진으로 인하여 3 분기 증권사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매우 낮아진 상황임. 따라서 8 월의 부진한 시장 지표 흐름이 증권업종 주가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
- 오히려 낮아진 기대감 대비 단기 채권금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하면서 채권평가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회복될 수 있다는 점과 부진한 실적에 주가에 충분히 반영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안정화만 확보되어도 증권업종의 단기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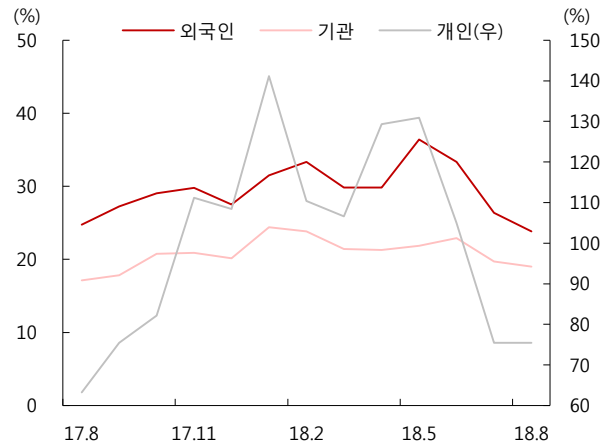
Brokerage 관련지표

8월 일평균거래대금 8.8조원, 2분기대비 37.0% 감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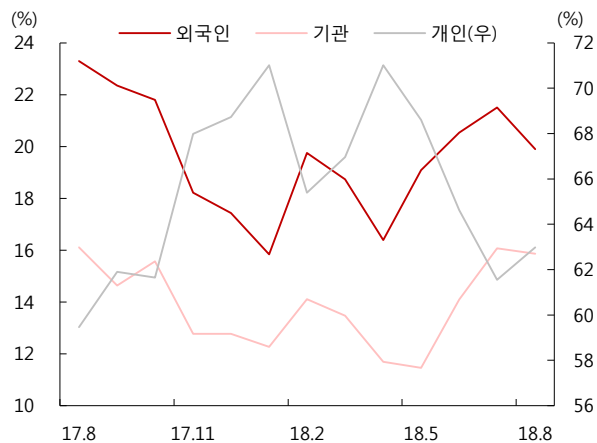
자료: KRX, 하이투자증권

회전율 추이: 개인들의 부진한 회전율 흐름 지속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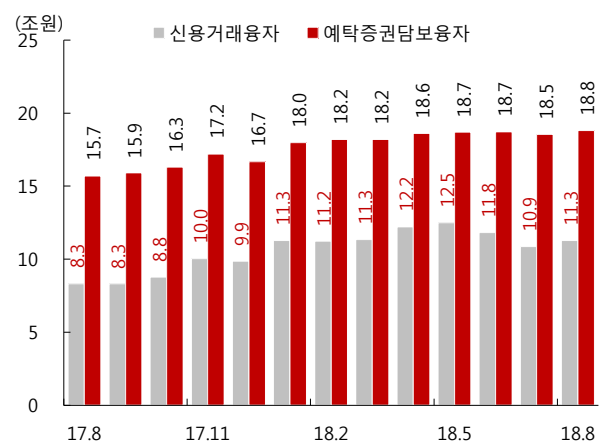
자료: KRX, 하이투자증권

주체별 매매비중 추이: 개인의 매매비중 급감 이후 소폭 반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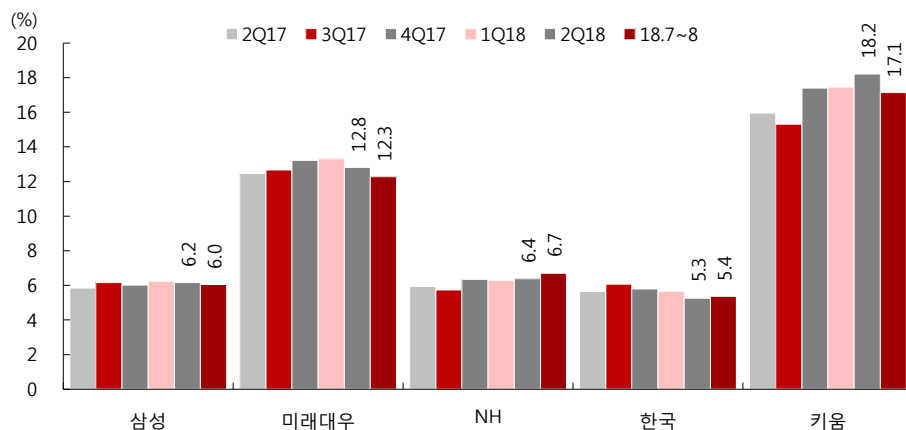
자료: KRX, 하이투자증권

7월에 위축된 신용잔고 및 예탁담보대출이 8월에 일부 회복



자료: 금투협, 하이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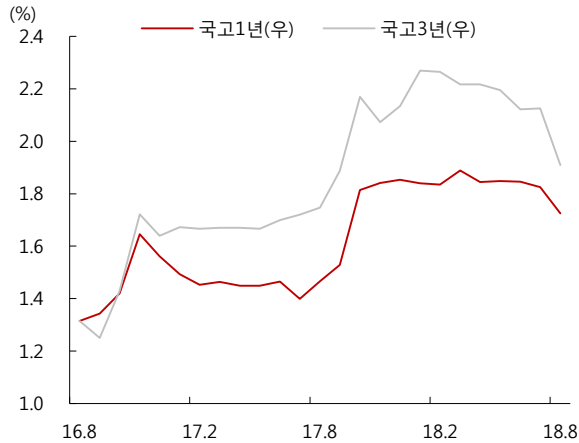
회사별 Brokerage 약정 점유율 추이



자료: Check, 하이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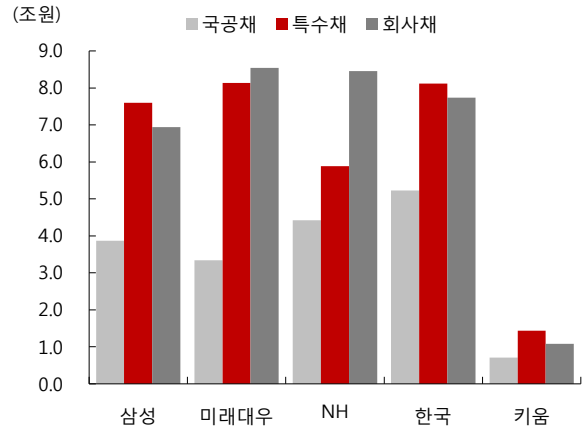
Trading 관련지표

8월 채권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, 1년 -10bp, 3년 -21.5bp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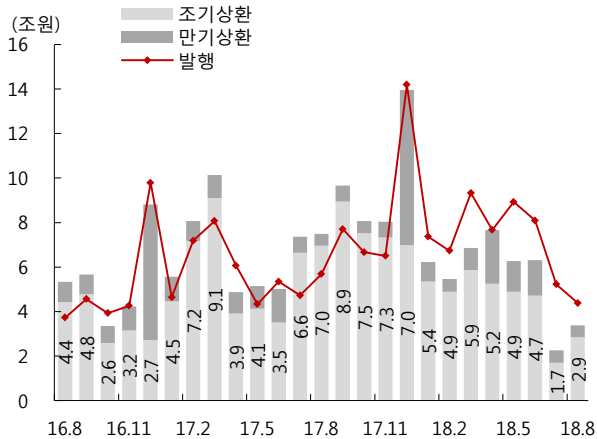
자료: BOK, 하이투자증권

증권사별 채권보유 현황, 2018년 6월말 기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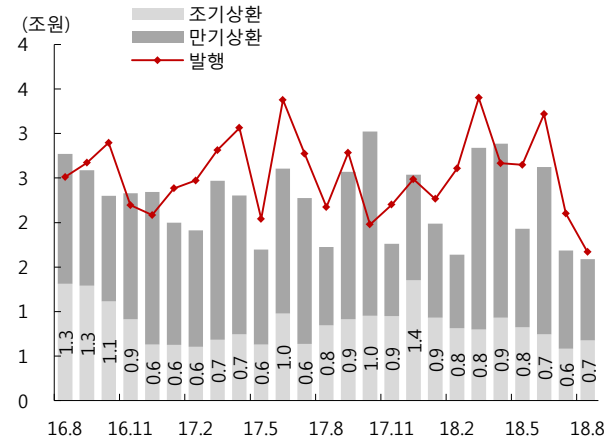
자료: 각 사, 하이투자증권

업계 ELS 조기상환 2.9조원, 2분기대비 여전히 부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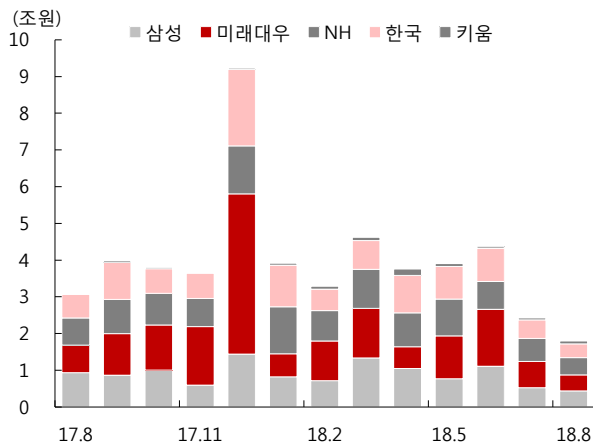


자료: 각 사, 하이투자증권

업계 DLS 조기상환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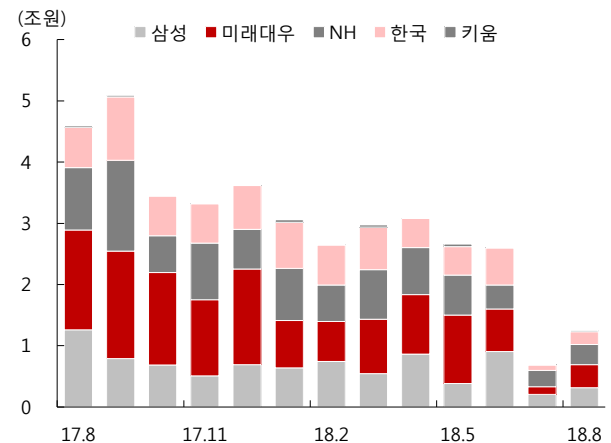


회사별 ELS 발행 추이, 7월에 이어 8월에도 감소



자료: 각 사, 하이투자증권

주요 증권사의 ELS 조기상환은 7월대비 회복



Compliance notice

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,

- ▶ 회사는 해당 종목을 1%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▶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▶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 자에게 E-mail 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▶ 회사는 6 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
- ▶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[\(작성자: 강승건\)](#)

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따라서,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,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.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.

1. 종목추천 투자등급 (추천일 기준 증가대비 3 등급) 종목투자자의견은 향후 12 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.(2017 년 7 월 1 일부터 적용)

- Buy(매 수): 추천일 증가대비 +15%이상
- Hold(보유): 추천일 증가대비 -15% ~ 15% 내외 등락
- Sell(매도): 추천일 증가대비 -15%이상

2. 산업추천 투자등급 (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)

- Overweight(비중확대), - Neutral (중립), - Underweight (비중축소)

하이투자증권 투자비율 등급 공시 2018-06-30 기준

구분	매수	중립(보유)	매도
투자의견 비율(%)	93.9%	6.1%	-